



수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미국·베트남 등 11개국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수해 수호볼드 주한 몽골 대사,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에드윈 길 멘도자 주한 필리핀 부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기보, AX 기반 디지털 정책금융기관 도약 선언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7일 부산 본점에서 '차세대 프로젝트 성과보고 & 아이시티(ICT)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전환(AI) 기반 디지털 정책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공식 선언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제약바이오협회, 韓-스웨덴 협력체계 구축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스웨덴 바이오와 함께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소공연, 국내 최대 직능단체 외식업중앙회 가세
소상공인연합회는 외식업중앙회가 공식 가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회원 100만명 시대를 연 소상공인은 국내 최대 직능단체인 외식업중앙회의 가세로 소상공인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이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SK이노베이션, 백혈병어린이재단 3억 기부
SK이노베이션은 서울 나눔소아암센터에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백혈병·소아암 아동 치료비 지원' 기부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충식 SK이노베이션 부사장(왼쪽)과 서선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레드닷 어워드' 석권... 최고상 등 16관왕

'익스프레시브 디자인' 인정 받아 OLED TV 'S95H' 최고상 수상

삼성전자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Red Dot Design Award 2026)를 휩쓸며 디자인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삼성전자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2개를 포함해 총 16개의 본상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1955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 주관으로 시작해 현재는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으로 자리 잡았다. 수상작은 기능성·심미성·혁신성·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 항목과 기준을 통해 선정된다. 시상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OLED TV 'S95H'. /삼성전자

▲제품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삼성전자는 '제품 디자인' 부문에 출품한 16개 디자인 모두가 본상을 받았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인 '익스프레시브 디자인'(Expressive Design)을 반영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S95H'와 비스포크 AI 세탁기 시리즈로 제품 디자인 부문에

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S95H는 전면 에 메탈 소재의 은색 프레임이 적용해 초슬림 OLED 화면이 본체 위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수상에 성공했다. 비스포크 AI 세탁기전 시리즈는 각 제품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호평을 받아 최고상을 받았다.

마우로 포르치니 삼성전자 DX부문 최고 디자인 책임자(사장은) "사람의 정체성과 감정, 다양성을 반영하는 디자인을 추구한다"며 "앞으로도 기능 구현을 넘어 의미 있는 연결과 목적을 가진 디자인으로 사람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LG상록재단, '3대가 걷는 화담숲길' 가족 초청 행사

내달 4일부터 사전예약

LG상록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대가 함께 걷는 화담숲길'을 주제로 가족 초청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부모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자연 속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화담숲이 지닌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화담'은 이 숲을 조성한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호이기도 하다.

행사는 내달 4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선정된 3대 가족 약 2500명을 대



'3대가 함께 걷는 화담숲길' 포스터. /LG상록재단

상으로 무료 진행된다.

화담숲은 전 구간을 완만한 경사의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해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자도 편안하게 이동

할 수 있다. 모노레일도 운영돼 이동이 어려운 구간까지 쉽게 둘러볼 수 있다.

참여 가족들은 복합문화공간 '화담채' 전시 관람을 시작으로 가족사진 촬영, 숲속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재단은 기념품으로 수국 화분을 제공해 가족들이 일상의 공간에서도 추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상록재단 관계자는 "화담숲은 자연을 감상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이 함께 머물며 소통하는 공간을 지향해왔다"며 "세대가 함께 걷고 머무며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환경산업기술원 남광우 신임원장 취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남광우(사진) 전(前) 환경보전협회(현재 한국환경보전원) 상근 부회장이 7대 원장으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과 한국고용정보원 전략기획팀장,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남 원장은 24일 취임사에서 "환경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시켜 친환경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기후후의 정책목표인 탈탄소 녹색번영 선도국가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산업기술원 조직 관련해서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저평가 우량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젊고 활력 있는 조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남 원장은 "새로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나부터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쇄신에 선순수범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유한재단,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전국 43개 대학 147명 선발

유한재단은 28일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본사에서 '2026년 제3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유일한 장학금은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는 인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문적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전국 43개

대학에서 선발된 147명이다.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미래 학문과 산업을 이끌 인재들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장학생 중 36명(약 25%)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함께 선발됐다. 유한재단은 장학사업의 포용성과 국제적 확장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목 유한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일한 장학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열렬사유



'2026년 제3회 유일한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과 유한재단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재단.

일한 박사의 정신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삶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넥슨, 내달 12일 '넥슨뮤지엄' 개장

넥슨컴퓨터박물관 리브랜딩

넥슨은 28일 넥슨컴퓨터박물관을 '넥슨뮤지엄'으로 리브랜딩한다고 밝혔다. 약 4개월간의 리뉴얼을 거쳐 내달 12일 재개장한다.

넥슨뮤지엄은 기존 기술 역사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넥슨의 30년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

브랜드 거점으로 재편한다. 게임을 '플레이어가 함께 만드는 문화'로 정의하고 이용자 경험 중심의 전시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흐름과 넥슨 주요 IP의 역사를 아우른다.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던전앤파이터' 등 40여 개 이상의 IP

를 한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관람객이 넥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양한 게임에 분산된 자신의 플레이 기록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개인화 기능을 제공한다.

리브랜딩과 함께 새로운 로고도 공개한다. 현실과 가상이 교차하는 순간을 형상화해 넥슨 CI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으며, 박물관 입구의 '문'을 상징해 새로운 게임 경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생활교통복지과장 김종성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박우성

◆리가캠바이오사이언스 ◇승진 △회장 김용주 △대표이사 사장 박세진 △상무 옥찬영

부음

▲박우훈씨 별세, 박성각·박성만(경북도의회 의장)·박복란·박용란씨 부친상=28일 오전, 명품 장례문화원 2층 VIP실, 발인 30일. 054-634-4444
▲김성달씨 별세, 김수진(서산시도지관리과 지적민원팀장)씨 부친상=28일, 보령SH수협 장례식장 백혈실, 발인 30일. 041-932-4004